

“축산자조금 법인화 추진 멈춰라”

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농식품부, 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
축산단체 손발 묶고 농가 밥그릇 뺏는 행태” 비판



시 자조금을 활용하고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정부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 넣으며 자조금 단체를 법인화하겠다는 게 골자이다”며 “이는 ‘축산단체 손발을 묶고 농가 밥그릇을 뺏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축산단체 대의원의 의견을 거친 사업계획을 정부가 임의대로 조정해 승인했다”며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 지연으로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자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이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박용근 의원은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가칭)자조금관리위원을

만들어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는 등 정부의 축산자조금 관리와 자조금의 사용 용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계획’을 축산단체에 제시했다. 이에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이번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추진은 정부 축산 자조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농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자조금 취지와 배치되며 정부가 물가 안정, 농가 입장에선 가격 누르기를 명목으로 축산 자조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곳곳에 보인다. 박용근 의원은 “축산물 가격 상승

박용근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용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매년

이러 “정부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농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농민의 밥그릇을 뺏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은 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성에 기반해 축산단체와 조율·합의를 이뤄야 하며, 정부와 축산농가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오히려 자조금의 시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자조금을 둘러싼 정부와 축산단체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앞으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구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시설 수의계약 규정·사용료 요율 신설... 운영 안정화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민간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산정 요율 및 수의계약 규정에 대해 부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혁신타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난 3월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주도하는 인적·물적 거점공간으로 정식 개관했다.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3년 만에 완공됐으며 기업 입주동과 연구 숙박동 총 2개동으로 이뤄졌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시설 수의계약 규정과 사용료 요율을 신설해 입주 활성화와 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활성화돼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김진표 의장, 이재명 단식장 흥기 난동은



“한·중양아시아 국회의원 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양아시아 국회의원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50대 여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어제 저녁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외부인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인 및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통감하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피해 경찰관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했다. 유류버로 알려진 5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22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현관 앞에 설치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쪽가위를 든 채 난동을 부려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김재훈 기자

내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출범식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19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의회 2층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연다. 이날 추미애 전 법무

부로 정치혁신과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원의 민주당 평단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9일부터는 전주중앙경기장 사거리에서 윤석열정부 폭정저지, 민생, 민주주의복원 결의대회를 열고 찬바람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학교복합시설 공모 불안 변산초 선정 환영”

김슬지 도의원, 어린이집 폐원 대책 촉구 등 숨은 노력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변산초등학교 선정되어 사업비 110억 규모의 변산 돌봄 문화센터 건립이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북교육청, 전북도청,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 변산초등학교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심각한 돌봄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교육부가 앞으로 5년동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내 모든 지역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물론, 각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난 13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개 사업이 선정됐고, 총사업비 7,500억원 중 3,020억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을 학교 시설과 연계해 복합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안군과 도교육청 등은 변산 돌봄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변산

초등학교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57.6억원 확보),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4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폐원 등 보육실태를 지적하고 농어촌 돌봄과 교육환경 개선을 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이번 공모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전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축! 전주매일 창간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행복한 진안,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http://council.jinan.go.kr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